

보도해명자료 (18.3.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채용비리 낙마 기관장들 속으로 웃는다

(18. 3. 15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'채용비리 특별점검'시 비위가 적발된 기관장*에 대하여, 수사 의뢰 이전에 사표 수리를 완료하여 '빠져나갈 길을 터줬다'는 지적

* 석유관리원(신성철), 에너지기술평가원(황진택) 기관장 2명 사표 수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(사실관계) 금번 조치는 관련 규정과 정부 지침*에 따라 이루어졌음

* (관계장관 간담회, 17.10.27) 채용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 정지 조치

- (석유관리원)^①이사장의 임원시절 인턴채용비리 연루사실이 확인되어 사표수리(18.1.8)하고, ^②업무방해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(18.1.5)하였으나 ^③'업무방해죄 혐의 없음'으로 결론 난 사항임(18.2.26)

- 산업부 조사결과 확인된 비위내용의 경중과 정부의 즉시 업무 배제 방침 감안시, 사표수리는 가장 엄중한 문책이었음

* 공공기관 문책은 공문법상 해임 조치밖에 없어 잘못된 해임조치는 해임 가처분소송·해임취소소송으로 문책 없이 복직해야 하는 문제 발생

- (에너지기술평가원) 수사의뢰한 바가 없으며,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무관용 문책 조치로 사표수리(17.12.28)했던 사안

- ☐ 산업부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경우 무관용 엄중 문책 방침을 지속할 입장임

※ 문의 : 감사담당관실 전제구 과장(044-203-5420)